

기후 위기와 맞물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사유하다

전남도립미술관 '필름 앤 비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순회 상영 프로그램
10월29일까지 매주 화요일 7개 작품

‘고독의 지리학’, ‘마거릿 테이트’의 단편선, ‘야생의 친척들’, ‘야생채집자들’, ‘고양이들의 아파트’, ‘잊혀진 공간’, ‘범죄의 장면’.

‘필름 앤 비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례화 된 연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순회 상영 프로그램인 ‘필름 앤 비디오’를 실시한다.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추석 당일 17일은 별도 일정 없음) 10월 1일은 정상 상영한다.

이번 순회상영 작품 주제는 ‘자연과 인간: 로맨스부터 호러까지’. 기후 위기와 맞물린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사유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 위주로 구성했다.

참여 작가는 ‘재클린 밀스’, ‘마거릿 테이트’, ‘주마나 마나’, ‘정재은’, ‘알리 체리’, ‘앨런 세콜라&노엘 버치’, ‘아마르 칸와르’로 총 8명.

첫 번째 상영 작품은 캐나다 출신 ‘재클린 밀스’의 ‘고독의 지리학’. 환경운동가 조이 루카스의 일상을 매개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추적한다. 지난 2022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번째 상영작은 스코틀랜드 출신 ‘마거릿 테이트’의 단편선이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영상 시인 ‘마거릿 테이트’가 집 주위의 계절의 변화 등을 촬영했으며 영상 전면에서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재클린 밀스의 ‘고독의 지리학’ 스틸컷

트’의 단편선이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의 영상 시인 ‘마거릿 테이트’가 집 주위의 계절의 변화 등을 촬영했으며 영상 전면에서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채집과 자연보전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도 있다. 미국/레바논 출신 주마나 마나의 ‘야생의 친척들’과 ‘야생채집자들’은 야생 식용식물에 대한 채집과 이를 둘러싼 규제 등이 초점이다. 생존과 보존 사이의 딜레마를 다뤘다.

국내 작가 정재은의 작품도 만난다.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대규모 재건축 때문에 텅 빈 아파트 단지

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관찰한 작품이다.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도심 속 아파트에 터를 잡은 고양이를 통해 도시의 변화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봤다.

레바논 출신 ‘알리 체리’의 ‘땀’은 자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 생태계를 들여다본다. 대기 오염과 열감의 분점으로 파생되는 자연과 공동체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담았다.

글로벌 자본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바다를 다룬 작품 ‘잊혀진 공간’은 바다를 깊이있게 바라 본 작품이다. 미국 출신 ‘앨런 세콜라&노엘 버치’의 작



앨런 세콜라&노엘 버치 ‘잊혀진 공간’ 스틸컷

품, 국제화물 운송을 추적하며 물질적 이익을 위해 글로벌 자본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바다를 초점화했다. 2010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로 ‘바다’의 정의와 존재 가치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마지막 작품은 인도 출신 ‘아마르 칸와르’의 ‘범죄의 장면’이다. 개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집단과 필연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영화는 글로벌 자본이 타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이지호 관장은 “얼마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자연 남획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보여주었다”며 “오늘날 핫이슈로 부상한 기후 문제 또한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가를 제시해 주는 명징한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관람 예약은 네이버 사전 예약과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의 순간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

이호준 작가, 22일까지 광주대 호심관...문인화·서예 등 40점

구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흐른다는 것이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람에 떠밀려 유유히 움직인다. 구름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열린 구름의 잔해는 얼마 전 구름이 그곳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흘러가되 자신의 존재를 일정 부분 남겨둠으로써 구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삶도 흘러가는 구름을 닮았다. 흘러간다는 점, 그리고 무언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운거(雲擧) 이호준 작가가 팔손을 맞아 펼치는 전시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은 끈처럼 흘러온 삶의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지난 5일 개막해 22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화, 문인화, 서예, 시화 등 40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광주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에서 화업의 길을 이



‘남만’

아고고 있는 이 작가는 공직생활을 하며 45세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했다. 지난 35년 간 주경야독으로 문인화, 서예, 시문학, 한국화, 연필인물화, 수채화, 전통 민화를 익혔다.

‘남만’과 ‘심산유곡’은 자연의 풍취를 작가만의 개성적인 운필로 풀어낸 작품이다. 섬세하면서도 활달한 붓질과 자연에 이입한 심상은 오랜 수련의



‘심산유곡’

흔적들을 보여준다. 작품 주제 ‘구름처럼 흘러온 흔적’이 화폭에 고스란히 응결돼 있어 삶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조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이 작가는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부담이 없는 그려면서도 잔잔한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창작하려 한다”며 “농촌은 풍경은 물론 자연의 서정적 풍광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림이 주는 위안과 평안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남부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미술대전 추천작가, 문화공간 신인 문학상 등단, 시회집 ‘단 한 번 사랑으로도’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선율과 ‘김종진, 빛을 향한 건축 순례’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24일 소극장

건축학자 김종진은 그동안 ‘공간의 진정성’, ‘미지의 문’ 등 저서를 발간해 공간과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저서 중 ‘그림자의 위로’에 나오는 예술적 공간들을 둘러보고, 이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일환으로 ‘김종진, 빛을 향한 건축 순례’를 오는 24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진행한다. 콘서트 가이드로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종진이 출연할 예정이다.

1부 ‘침묵의 빛’에서는 남프랑스 르 토로네 수도원으로 떠난다.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르 토로네와 바흐로 이어지는 건축, 클래식 이야기를 ‘바흐, 푸가의 기법, 8번 대선율’에 담았다.

이어 2부 ‘예술의 빛’에서는 독일 인젤호브르 미술관 파빌리온 건물들을 살펴본다. 함께 감상할 곡은 ‘베토벤 현악 4중주 14번 1악장’으로, 4개의 현이 따로 또 같이 역할을 하는 모습은 인젤 호브르 이히 미술관 섬의 오솔길 모습과 닮아 있다.

권해운이 작곡한 ‘현악 4중주를 위한 보사노바’는 3부 ‘생명의 빛’에서 울려 퍼진다. 멕시코



건축학자 김종진



바이올린 김지민

길라드리 주먹을 통해 빛과 색의 움직임, 꽃과 나무의 모습을 발견한다. 끝으로 ‘안식의 빛’은 스웨덴 우드랜드 묘지를 ‘빌헬름 스텐하르트의 현악 4중주 F단조 2악장’으로 마무리한다.

진행은 지난 콘서트 가이드를 맡았던 이상협이나운서가 맡으며 연주팀은 지역 신예 예술가로 구성된 현악 4중주가 참여한다. 바이올린은 호남 예술제 금상 출신의 김지민, 황은홍, 비올라에 권해민, 첼로 조은강.

R석 2만 원, S석 1만 원. 전당 누리집 예약.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대마 흡입 혐의 조각가 전시 ‘논란’

최하늘 ‘우는 삼촌의 방’ 제1전시실
재단 “내용 파악 후 철거 여부 논의”

광주비엔날레에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1 전시실에 전시 중인 최하늘 조각가의 ‘우는 삼촌의 방’으로 개인화 고립화되는 사회에 대한 사유를 투영한 작품이다. 최 씨는 지난 1월 배우 유아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프레스 오픈 하루 전인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작품 전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재단 관계자는 “감독, 재단, 작가와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개막식을 앞두고 작품 철거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술계 한 인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작가의 대마 흡입 혐의가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사회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추후 자연스럽게 철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이 투입된 국제적인 행사다. 지난 14회 때보다 39억 증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는 삼촌의 방’에 대해 비엔날레 측은 “작업 속 ‘삼촌’은 암암하고 낯선 감정을



‘우는 삼촌의 방’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온몸으로 표현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삼촌’은 소외된 존재, 나이 들어가는 쿼어, 나아가 작가 자신을 은유적으로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제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국제적 시각과 국내적 시각이 있다”며 “사실 확인 후에 계속 전시, 철거 여부 등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86일간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본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다양한 국가, 기관 등이 참여하는 31개 파빌리온도 역대 최대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예금 ‘관계’ 전, 27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정예금 ‘관계’ 전이 펼쳐지는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전시관 모습.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광주시민회관으로 청사 이전 및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특별전을 개최한다.

광주 출신의 섬유예술 작가이며 광주전터포럼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정예금 작가의 ‘관계’ 전이 바로 그것. 오는 27일까지 재단 내 광주여성전시관(HERSTORY)에서 진행한다.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관계’라는 주제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표현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 출신의 섬유예술작가 정예금의 작품 16여 점을 만나는 자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작품들은 섬유 질감을 이용해 실루엣이 겹쳐 보이는 효과를 준다. 아크릴 미러 재질의 배경을 통해 이미지의

‘투영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들은 투명하고도 선명하다.

관람객 시점에 따라 동일한 이미지도 다양하게 보이는 홀로그램 기법도 접목했다. 젠더 및 페미니즘 사유를 담은 현대 섬유예술 작품들은 관계의 지속,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 인식 등을 함의한다.

광주전터포럼 문화다양성분과와 연계한 패션쇼, 중창단 및 퓨전국악 공연 등 오픈식도 10일 마련됐다. 전시 관람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전시관(재단 홈페이지)에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휴관.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